

# 전남도,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3년간 27조원 달성

### 민선 8기 목표액 30조 순항...실행 되면 2만1618명 일자리 창출 전망 해상풍력·데이터센터 등 맞춤형 마케팅으로 해외 투자 유치 적극 나서

전남도가 민선 8기 들어 3년만에 27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 침체 속에도 도내 산업구조를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30조원 투자 유치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이차전지, 우주항공, 해상풍력 등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해 과감하고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말까지 국내외 기업 403개와 총 27조2872억원의 투자협약을 했다. 이 투자가 실행되면 모두 2만 1618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에너지, 첨단소재, 데이터센터 등 전략산업과,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이 20조6920억원으로 총 실적의 78.5% 차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기존 투자유치 활동에 차별화된 전략을 집중해 민선 8기 투자 유치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식품산업, 해상풍력 기자재, 데이터센터 등 역점산업과 전남지역 산업 입지 여건을 고려한 신규 산

업을 발굴하고, 전통 주력산업의 재투자를 유도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해 투자유치 다변화를 꾀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확장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 ▲식자정보문화사업, 식품기업 보조금 확대 ▲연구개발업 지원요건 완화 ▲본사 이전기업 특례 지원 등 대규모 투자기업과 미래 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보조금제도 확대·신설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투자유치 활동의 새로운 변화에도 나선다. 기존 포괄적 대규모 투자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타깃산업과 기업군별 소규모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 맞춤형 IR(투자자 대상 홍보 활동)을 함께해 잠재 투자기업부터 재투자기업까지



김영록 전남지사가 4일 도청 접견실에서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와 면담을 갖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기업별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함으로써, 실질적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이러한 전략적 변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식품

산업 등 중점 산업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주요 타깃은 해상풍력 분야 북유럽, 데이터센터 분야 미국, 이차전지 분야 중국, 식품산업 분야 일본과 동남아, 유전 기업 분야 중국과 베트남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산업별 타깃 국가와 기업을 연계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해외 유치 활동을 통해 지역과 산업, 국내외 기업 간 협

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런 전략이 지역 경제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적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 기업이 찾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계엄·참사에 더욱 빛난 광주의 힘...경제·민주주의 강화할 것”

### 강기정 시장 올해 첫 시정연설

강기정 광주시장은 4일 “연말의 활기와 새해의 설렘 대신 계엄의 공포와 참사의 아픔을 헤쳐오며 자랑스러운 ‘광주의 힘’을 다시 느꼈다”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와 더 따뜻한 민생경제를 통해 ‘내일이 빛나는 광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계엄의 밤, 광주 공동체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시정에 모여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선언 연석회’를 열어 광주의 결의를 보였다”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거대한 슬픔이었지만 ‘제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로빈슨 교수의 ‘민주주의 사회가 경제 발전에서도 앞서간

다’는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 도시 광주는 ‘더 살기 좋고, 더 기업하기 좋고, 더 즐기 좋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고도 했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100만평 미래차국가산단 유치와 220만평 미래차특화단지 유치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 2단계인 AX 실증밸리 조성사업, 인공지능기업 142개사 광주 이전 및 252개사 MOU 체결 등을 약속했다.

또 5000억 창업펀드 조기 조과 달성·실증공간 81곳 확대, 유망 반도체 설계기업 5개사 유치와 AI·반도체·문화콘텐츠 인재 양성, 복합쇼핑몰·Y벨트 등 도시 이용인구 3000만 시대 구체화 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특히 올해는 12·3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 신인도가 훼손되고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위기 대응에 힘쓰고, 비

상계엄 사태와 여객기 참사 등으로 위기에 닥친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도 챙긴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다.

여기에 돌봄에 의료를 더한 ‘3세대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사회적 참사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1229 마음센터’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예술·스포츠·인권 등 광주의 강점을 살린 연중행사를 하나로 묶어 많은 사람이 찾고 머무는 광주를 만들기에도 매진한다.

강 시장은 “광주의 소비위축은 다른 시·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 소비’ 장려,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착한 금융’ 지원, 산업·창업 활성화를 복지 중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착한 일자리’ 만들기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 광주시,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 운영

### 지원단 관리 영역 확대

광주시는 4일 “지나해부터 운영한 ‘가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을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관세전쟁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불

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시는 지원단 관리 영역을 가전산업에서 자동차 산업 등 수출산업 전반으로 넓히고 선제 대응·관리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글로벌 관세전쟁에 따른 지역업체 상황 및 대응, 지역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 산업 중 대미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동차·가전 분야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애로 사항·의견을 듣고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국내외 상황 급변으로 지역경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광주 주력산업인 자동차·가전 등 수출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지방정가 라운지

##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구간 주민 소음·분진 피해 심각”

### 이귀순 시의원 본회의서 지적

광주시 제2순환도로가 연결된 관산구 신창동 인근 주민들이 교통 소음과 분진 등으로 15년 가까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귀순(민중·광산구4) 광주시의원은 4일 열린 제330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2007년 5월 제2순환도로 신창지구 구간이 개통되면서 인접 아파트 시민들이 심각한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일부 개방된 터널의 전면 밀폐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신창지구 방음터널은 상부 20~30m 길이의 캐노피 개방 구간으로 설치됐다”면서 “일반적으로 방음터널이라 하면 전면 밀폐된 터널로 인식되며, 광주에 설치된 다른 방음터널 또한 전면 밀폐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결국 방음터널 상부가 개방된 곳으로 소음과 분진이 집중돼 그 구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주장한다”며 “실시설계 용역 당시, 공사 시작 전 단 한 차례라도 시민들을 대



상으로 설명회를 거쳤더라면 공사 중지로 인한 행정력, 예산 낭비 등 불필요한 갈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2016년 방음터널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시작했고 2020년 착공돼 3구간으로 나눠진 공사 구간 중 1구간 준공을 앞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방음터널에 대한 전면 밀폐가 아니면 협조할 수 없다’고 반대해 신창지구 방음터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주민이 참관한 상태에서 세대별 소음·대기질을 측정하고, 방음터널 성능평가 등을 진행한 뒤 종합적인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시의회, 해당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학 부

계열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범	유아교육과	8	2	
예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실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으로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www.kwangshin.ac.kr